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17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35)	봉헌 (221)	성체 (166)	파견 (244)
---------	---------	----------	----------	----------

제1독서 | 사도 9,26-31

화답송 | 시편 22(21),26ㄴ-27.28과 30ㄴ.30ㄷ-32(◎
26ㄱ 참조)

◎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 찾는 이들은 그분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
○ 온 세상 땅끝마다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만민족 모든 가문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세상 모든 권세자들 그분께만 경배하고, 흠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 그분께 무릎 꿇으리라. ◎
○ 내 영혼 주님 위해 살고,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다가올 세대에게 주님 이야기 전해져, 태어날 백성에게 그 의로움 알리리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음이다. ◎

제2독서 | 1요한 3,18-24

복음환호송 | 요한 15,4,5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복음 | 요한 15,1-8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4/29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5/6	이 마틸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5/13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5/20	이 마틸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20	\$	\$4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28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6/2	손 아놀드/ 손 쟈마
5/5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6/9	이 글라라/ 장 글라라
5/12	김 마론/ 김 헬레나	6/16	이 요한/ 이 마틸다
5/19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6/23	유 요한/ 유 마리아
5/26	황 가롤로/ 전 제노베파	6/30	김 요아킴/ 고 안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5 월 3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 주 일요일 오후 7 시 다음 회의는 5 월 13 일 둘째 주에 하게 됩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목요일 오후 8 시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성경공부: 매주 주일미사 후

매주 해당 성경말씀을 필사하여 그것을 통독하고 나눔을 갖습니다. 장소는 친교실 입니다.

소 공동체 모임: (매달 셋째 주일 미사 후)

다음모임은 5 월 20 일 미사 후 있겠습니다.

공동체 가족 변경사항

오베드로 형제님과 오루시아 자매님이 이사를 가셨습니다.

김안드레아 형제님이 뉴욕으로 이주 하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신 형제, 자매님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 하고 건강하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모의 밤 행사 5 월 12 일(월) 6:45pm

이번 성모의 밤은 지난번과 같이 성당 옆 잔디밭에서 하겠습니다. 행사 후 친교실 에서 식사가 준비됩니다.

말씀의 이삭

하느님의 시간, 나의 시간

-이상호 비오 -kBS 아나운서-

아픈 둘째 아이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마음이 무너져 내린 저는 상담을 받으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정말 힘든 건지 근본적인 걸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호 씨는 기질적으로 약한 사람이군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남들이 알아챌까 봐 그동안 갑옷을 입고 살아왔어요. 그 갑옷을 벗대 입어서 더 무거워졌어요. 이제는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아버린 거고요. 그걸 벗어 버려야 하는데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가진 후로는 남들의 시선 때문에 자신을 감추는데 더 익숙해진 거죠. 상처받아도 아무렇지 않은 척, 담담한 척, 어떤 상황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이 계속 상호씨를 괴롭혀 온 거예요.’ 저는 어쩌면 제 자신을 속이며 살아 온 건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 탓에 제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고 무엇을 하든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실패하거나 불완전하게 끝날 것 같은 일이 있으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저였으니까요. 제가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을까를 오랜 시간 고민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견뎌왔는지, 지금 이렇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속에 올라온 결론은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그 삶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려고 했던 오만한 저의 태도가 병을 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삶의 중심에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은 쓸데없이 지켜야 하는 자존심으로 변질되고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제가 통제할 수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삶과 시간도 제 것이라 착각하며 그분을 위해서 내어놓는 일은 그저 아깝고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저를 아프게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더 이상 보여지는 것으로 비교하면서 저를 잃어 버리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마주치는 삶의 이면에 있는 영원함을 볼 수 있기를, 그리하여 결국 주님이 처음 저를 빚어 내신 본래의 저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속이며 살아오느라 지쳤을 저를 위로해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 이상 지나버린 과거를 붙잡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저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두려움과 불안으로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도 귀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제 계획이 아닌 하느님의 계획안에 저를 온전히 맡기려 합니다. 제 시간이 아닌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려 합니다. 제 구원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아멘.

서울주보에서